

새로운 시대 준비하는 우리말 사전

통일 대비한 '국어대사전' 비롯, 특수사전들 활발히 출간

국어사전은 한 나라 말글생활의 규범이자 그 나라 문화역량의 압축된 표현이다. 그러나 현용 국어사전은 사전마다 제각각 다르고 용례가 적어 활용이 어렵다. 이런 국어사전의 문제점은 진작부터 각계에서 지적해 왔고, 이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할 새로운 사전의 요구에 맞추어 새 국어사전 편찬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어학회(한글학회), 민중서관, 금성출판사 등에 의한 사전이 이제까지 큰사전으로 활용되어 왔다면, 지금 국립국어연구원과 연세대·고려대 등에서 진행중인 사전편찬은 바야흐로 21세기에 맞는 방대하고 본격적인 작업이다. 아직도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정부지원과 학계재단의 지원, 그리고 개인과 단체가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사전편찬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 진행중인 큰사전

남북한에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한글 큰사전으로는 단연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1)과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조선말 대사전》(1992)이 꼽힌다. 《우리말 큰사전》은 한글학회가 지난 47년부터 57년에 펴낸 모두 6권짜리 《큰사전》을 스무해 동안 고치고 기운 것이다. 수록어가 16만개에서 45만개로 늘어 이제껏 나온 국어사전 가운데 가장 많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은 33만단어를 수록한 대사전이며 88년의 조선말규범집을 따르고 있다. 원래 한자말인 단어의 경우 풀이 끝에 어원 한자를 밝혔다.

통일 이후 언어적 혼란을 줄이고 단기간에 걸친 최소의 수정으로 쓸 수 있는 통일 한국의 규범적 사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전을 아우른 '통일국어사전'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91년에 창설된 국립국어연구원(원장 이익섭)은 사전편찬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무려 50만 어휘를 수록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작업이 가장 막중한 업무. 현재 65%정도 진행되었다.

이 사전은 한글맞춤법·표준어 규정 등 현행 어문규범을 철저히 적용해 국민언어생활의 표준을 정하고, 북한과 해외동포의 우리



국어사전은 한 나라 말글생활의 규범이자, 문화역량의 압축된 표현이다.

말을 폭넓게 반영해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애초 2001년까지 1백억 예산을 들여 편찬할 계획이었지만, 5년이나 앞당겨 97년 발간 예정으로 서두르다가 다시 2년이 연장됐다. 외부 집필자와 전공학자의 감수가 있기는 하지만 정규직 7명, 임시직 44명의 적은 인원이 진행하기엔 벅찬 작업이기도 하다.

“표준대국어사전은 기존 사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사전을 비교 분석했다. 우선 보완할 부분으로 ‘현행 어문규정을 충실히 반영’ ‘어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법정보를 충실히 보인다’ ‘동사의 활용형과 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의 발음을 보여준다’ ‘용례를 충분히 보여준다’ ‘관련어휘와 참고어휘를 충분히 정확하게 보여준다’ ‘북한어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고 사전편찬실 학예연구관 이현우씨는 말한다. 전문어와 북한어 감수에도 막바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전 편찬작업도 두드러진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용례가 풍부한 대사전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소장 이기용)와 연세대 한국어사전편찬실(실장 김석득)이 추진하는 이들 두 대학의 사전 편찬은 한샘출판사와 동아출판사로부터 각각

연구지원금 10억원을 받는 산학협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98년쯤 중사전 정도의 시제품을 내놓은 뒤 대사전을 편찬할 계획.

언어학·국어문학·전산학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92년 결성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는 신문·잡지·소설·수필·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도서 등의 자료를 입력해 살아 있는 풍부한 용례와 빈도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확보한 뒤 형태소를 가공하고 뜻풀이와 문법적 분석을 통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특수사전은 민간에서 활발

한편 외솔 최현배 등 한글연구의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의 사전편찬 작업은 86년 ‘한국대사전편찬동인회’를 결성해 기초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89년에는 사전편찬실을 대학 정식기구로 발족시켜 어휘의 사용빈도수를 조사하는 등 사전편찬 작업을 본격화했다. 연세대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방법은 우리말 뭉치의 전산처리에 의거한 뭉치언어학. 연세대는 70년대 이후의 문헌자료를 입력해 1차 빈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5만개의 교육용 한국어 학습사전까지 출간할 계획인데, 대사전, 종합국어대사전을 목표로 한 20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과 고려대 연세대는 각기 사전이 완성되는 대로 CD롬 사전작업도 계

획하고 있다.

민간에서 이루어진 사전 작업도 적지 않다. 한글학자 박용수씨(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가 평생의 연구를 모아 펴낸 《겨레말 갈래큰사전》(1993)과 《겨레말 용례사전》(1996)은 우리말의 사용방법을 단어별, 용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한 보배다. 우리말의 쓰임새를 정리하고 용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요긴하다. 순우리말의 용례를 담은 방대한 연구결과는 큰 연구소에서 담당해도 10년은 족히 걸릴 분량이고 단어마다 같은 말, 잘못 쓰이는 말, 큰 말, 작은 말, 센말, 어린말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

올해 6월에 나온 김재홍 교수의 《시어사전》도 시어해독에 길잡이가 되는 사전이다. 김교수가 20년 넘게 매달린 이 사전은 시에 사용된 언어들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그 의미와 용례를 밝혔다. 1921년부터 1995년까지 출간된 시집 1만5천여권 가운데 1천권이 대상시집. 어떤 시인이 즐겨 사용하거나 직접 만든 개인 시어, 시인이 되살려 쓴 고어·은어·속어·방언·상징어 등 1만2천여개의 시어를 그 용례 및 출전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우리 토속말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방언과 토속말이 살아 있는 시어사전 편찬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간인이 펴낸 특수사전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송재선용의 저작이다. 동양학과 고전발굴에 힘을 기울여 온 동문선출판사와의 인연으로 그는 벌써 6권의 사전을 펴냈다. 지난 83년 펴낸 《우리말 속담 큰사전》은 40여년간 모아온 공적이다. 그간 띄엄띄엄 나온 속담사전과 국어사전만이 아니라 북한의 어휘사전, 속담사전까지를 참고해 2만 5700개의 속담을 묶었다. 원영섭씨가 엮은 《우리 속담사전》(1993)과 함께 가장 방대한 속담사전이라 할 만하다. 속담들은 그 첫 단어의 첫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순으로 모았고, 해당 속담 뒤에는 그 속뜻을 설명한 뒤 비슷한 함의의 속담들을 열거했다. 송재선씨가 최근 출간한 《주색잡기 속담사전》은 알차게 팔려나가는 스테디셀러. 그 외 《상말속담사전》 《농어민담사전》 《동물속담사전》 《여성속담사전》 등이 있고, 곧 돈에 관련한 사전과 속담 큰사전을 발간할 예정

우리말 특수사전

책 제목	지은이	발행처	발행연도
반대말사전	김광해	국학자료원	1990
이두사전	정지영·정세영	정음사	1976
고어사전	남광우	일조각	1960
한국고전용어사전	한국계대문화연구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한국어형용사사전	박준하·김병선	계명문화사	1991
우리말 상소리사전	정태룡	프리미엄북스	1994
민족생활어사전	이훈중	한길사	1992
만물유래사전	박영수	프레스빌	1995
뉘앙스표를 겸한 우리말사전	임홍빈	아카데미하우스	1994
한국속담활용사전	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한국의 속담용례사전	정종진	태학사	1993
우리말 상소리 사전	정태룡	프리미엄북스	1994
우리말속담큰사전/주색잡기속담사전/ 상말속담사전/농어속담사전/ 동물속담사전/여성속담사전	송재선	동문선	1983-1997
채만식 어휘사전	임무출	토담	1997
한국의 육설백과	정태룡	한국문원	1977
관용어대사전	허 현	속기문화사	1989
사전에 없는 토박이말 2400	최기호	토담	1995
시어사전	김재홍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방언사전	김병제	한국문학사	1995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제주어 사전	현평효	제주대 박물관	1995
함북방언사전	김태균	경기대학교 박물관	1995
은어사전	장태진	형설문화사	1963

이라고 동문선 박재환 주장은 밝힌다. 정태룡씨의 《우리말 상소리 사전》은 은어·속어·육설 등 천한 소리 6천여 가지를 담고 있다. 이들 어휘는 국어사전은 물론이고 민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들로서 주로 음식과 성에 연관된 것들이 많다. 그의 사투리를 담은 사전도 몇 있다. 아직 통합된 사투리 사전이 없어 아쉽지만 각 지방의 방언을 모은 사전으로 《방언 사전》《평북방언 사전》《제주어사전》《함북방언사전》 등이 출간되어 있다. (그의 특수사전 자료는 《출판저널》 92호(91년 10월 5일자), 178호(95년 10월 5일자) 참조)

사전의 제구실을 위하여

현재 대략 1백종 가까이 이르는 국어사전(우리말사전)들은 편제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큰사전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이 사전들은 실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어휘 수록이 많고 토박이말을 살려 실지 않았는가 하면 일본식 한자와 외국어들을 거르지 않은 채 등재하고, 용례와 어원 설명이 크게 모자라거나 아예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북한 어휘의 수용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한글사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실제 언어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든다. 표제어 선정과 어휘풀이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전문성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 취약한 재정과 편찬인력의 비전문성은 아직도 효과적인 개정을 방해해 문제를 악화시킨다. 조재수 전 한글학회 사전편찬실장은 “지금과 같이 출판사의 비전문 인력들이 임의로 표제어를 뽑아 집필하고, 또 사전편찬 경험이 축적, 전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코 좋은 사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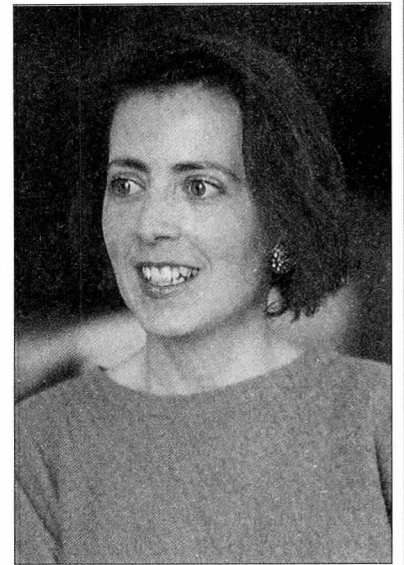
백과사전이 아니라 ‘언어사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사전의 경우 표제어 선정과 어휘 풀이에서 백과사전적 요소를 줄이고, 늘어나는 전문 분야의 수요에 맞춰 ‘뽕사전’이나 ‘말다듬기 사전’ 같은 갈래사전의 편찬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각각 활용하고 있는 특수사전의 자료와 경험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귀기울여볼 만하다. — 마정미 기자

내가 경험한 한국어사전

문학작품에서 인용하는 용례 없어

마리즈 부르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번역요원



마리즈 부르덴씨.

나는 프랑스에 갈 때마다 책방을 열심히 다닌다.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도구를 필요로 한다. 모든 도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이다. 프랑스 책방에 갈 때마다 나는 그렇게 다양한 사전이 나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첫째로는 매일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한 일 반적인 사전이 있다. 그 사전들은 꽤 작아도 단어가 거의 다 있다. 물론 2, 3, 5, 10권짜리 사전도 있다. 그 책들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언어사전들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전도 있다. 동의어사전, 반의어사전, 어구사전, 속담사전, 어원사전, 철자사전, 은어사전, 방언사전까지. 게다가 사전 종류마다 여러 출판사가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 소설을 불어로 번역하는 친구들과 나는 1996년 11월에 ‘한국문학번역학술회’로 개칭된 한국 문학작품 번역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우리들이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번역하면서 우리가 쓰는 한국어 사전에 관해 쓰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번역하고 있던 작품, 서정인씨의 《달궁》(김경희·이인숙·마리즈부르덴 옮김)이라는 소설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어서 사전에 관한 문제점들은 다음에 밝히기로 결정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설을 번역할 때 우리는 한국어 사전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한불사전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 사전에 없는 말이 있어서 한국어 사전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말이 한국어 사전에도 없었다. 예를 들어 ‘삼주문’,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 국어 선생에게 물었다.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의 뜻을 알지만, 내가 외국인이니가 이 말을 몰랐고, 사전에서 못 찾았다. 또 ‘밭떼기, 불각철, 와석, 팔부, 토수’ 등도 사전에서 찾을 수 없었다. ‘밭떼기’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사전에는 안 나왔다.

《달궁》뿐만 아니라 나는 혼자서 한국 소설을 몇 개 번역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윤홍길씨의 《장미》라는 소설을 번역할 때에 같은 문제가 있었다. 사전에서 못 찾은 말은

“꺼끔해지다, 질세라, 쪼매, 우세우세하다, 나가볼팅게, 배잠방이” 등등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의 뜻을 알아맞힐 수 있다. 하지만 못 알아맞히는 말도 많다. 아직까지 왜 사투리 사전이 없을까.

한국어사전은 이상한 특징이 또 있다. 용례(用例)가 없다. 프랑스 《뽀띠 로베르》의 경우에는 단어와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이 같이 나온다. 이 문장은 작품에서 뽑은 문장이다. 그 뒤에는 작가 이름이 나란히 나온다. 사전을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쓰이는 작품에 나온 말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사전이라는 책은 언어의 상태를 보여준다. 즉 사전은 어느 문화의 표현 도구이다. 문화라는 개념은 항상 발달하고 변해가는 것이다. 이 발달·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가 나타난다. 불행하게도 나는 한국어 사전들이 한국의 문화 변화·발달, 다시 말해서 한국어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국 출판사들이 한글로 쓰이는 외래어 단어 말고, 좋은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 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